명량 대종상4개부문 석권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지스타 마지막 날 입장권 구매 인산인해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 2014 마지막 날 23일 입장시간인 오전 10시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입장권 판매구매 부스 앞에 수많은 인파가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수백명의 중고생은 전날인 22일 오후부터 전야단에서 밤을 지새웠다. /연합뉴스

지스타, 해운대를 뜨겁게 달궜다

역대 최대 규모 박람회 성료…1시간 줄 서 입장

"지금 줄 서면 체험까지 한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안내 책자가 떨어졌는데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제10회 국제게임박람회 '지스타 2014'가 열린 부산 벡스코는 해운대 백사장을 방불케 하듯 게임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연초부터 각종 게임 규제법과 실적 부진으로 냉랭했던 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올해 지스타를 기점으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였다.

오전 10시 벡스코 정문. 지스타 행사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모바일 이벤트 부스가 설치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네이버 앱스토어, NHN엔터테인먼트, 넥슨, 엑스엘게임즈는 야외 부스를 얻고 스마트폰으로 현장 이벤트에 참가한 관중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엑스엘게임즈는 온라인 게임 '문명 온라인'을 선보였지만, 이벤트는 모바일로 진행했다. 스마트폰으로 바람개비 테스트를 신청한 관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한 것이다.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서는 게임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듯했다. 마침 20일 지스타 개막식 전날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카카오 게임 '블레이드'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게임대상 개최 15년만에 탄생한 모바일 게임 수상이었다.

모바일 게임 인기는 기업 부문(B2B) 행사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행사장 곳곳에서 모바일 게임 홍보물과 통역을 대동한 외국 바이어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모바일게임 참관 장사진
B2B에 바이어 발길 북적
온라인대작도 열기 여전
채용박람회등 내실 강화

모바일 게임 3종-온라인 게임 1종과 함께 B2B에 참가한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기업 상담 125건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정우진 대표가 해외 투자자와 직접 수출 상담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울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부침이 심하고 유통 문제도 복잡해 더 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 **대작 온라인 게임 인기 여전**

모바일 게임 강세 속에서도 온라인 게임 대작을 향한 인기는 여전했다. 일반 부문(B2C) 전시관에 마련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터널',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 아크' 체험관은 평균 대기 시간이 한시간을 넘길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스마일게이트는 창사 처음으로 지스타 B2C에 참가해 화제를 모았다. 백민정 스마일게이트 이사는 "해외보다 국내 인지도가 낮은 점을 만회하고자 온라인 게임 3종과 모바일 게임 1종을 들고 지스타에 참가했다. 디바이스 발달로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됐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게임 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바일에서 느끼기 어려운 대작에 대한 목마름은 온라인 게임의 부흥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기업과 참가자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었다. 게임 시연과 경품 행사와 외형 측면뿐 아니라 게임 개발자와 팬들의 만남, 게임기업 채용 박람회 등으로 내실을 강화한 것이다. 이정호 넥슨 홍보실 부실장은 "게임 개발자가 팬에게 직접 게임을 설명하며 시연하는 슈퍼스테이지 행사 반응이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팬과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6시 벡스코. 지스타 행사 마감 시간이 됐지만 관람객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남은 부스를 더 둘러보는 인파로 벡스코는 바쁘게 움직였다. 올해 지스타 슬로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Game is not over)'란 표현이 절묘하다고 느껴진 순간이었다. 23일부로 올해 지스타는 '게임 종료'(game over)됐지만 내년 지스타를 향한 '게임 계속(game continue)' 버튼은 이미 눌러졌을 것이다.

/부산 벡스코=장형후기자
unious@metroseoul.co.kr

여야 예산 막판까지 신경전

담뱃세 인상 부수법 포함될 듯…야 "보이콧" 반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들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이번 주 초까지 최종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 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과 정부 자원에서 부수로 발의한 법들을 추려보면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 의장 측은 내다봤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중 지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국회 일정은 보이콧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와 관련,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담뱃세 인상 등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갖고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영두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박인용 안전처 장관 후보자 재산 2억3900만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박 국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 2억3900만원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 사상자 130여명"

1999년 6월 15일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 사상자가 13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군인 김진호'에서 제1차 연평해전 당시 전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북측 피해 규모에 대해 "우리의 통신정보기관에서 당시 북한의 교신내용을 파악한 것으로는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당시) 교전으로 손해를 입은 북한 어뢰정 1척과 경비정 5척의 탑승자는 대략 200여 명"이라며 "침몰한 40t 신흥급 어뢰정의 탑승자 16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당시 북한 함정 중 80명이 탑승하는 420t 대청급 경비정은 충돌 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부서졌고 34명이 탑승하는 155t 상하이급 경비정은 선체가 반쯤 물에 잠길 정도로 파손됐다. 탑승정원 17명의 81t 청진급 경비정 2척도 충돌과 포격으로 대파됐다고 김 전 의장은 말했다. /양후영기자

북한 국방위 "UN 인권결의 배격…美 사죄해야"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3일 유엔에서 통과된 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여러 명의 미국 국적의 범죄자에게도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어주었다"며 "미국은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박근혜 패당은 이 땅에 티 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방위는 "유엔은 20여 년 전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핵선언 뇌성을 울렸던 때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며 199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거론해 앞으로 제4차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후영기자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전사자 명비 참배하는 국방장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군 주요인사들이 전사자 명비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계류법안 8600건… 임시국회 소집될듯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당이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가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회 개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유주영기자

가스 분출 사고 발생한 우정총국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우정총국에서 화재진압용 하론가스가 분출돼 일부 관람객이 순간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생명과학Ⅱ 8번 최종정답 오늘 발표

복수정답 시 4000명 등급↑

영어, 영향 크지 않을 듯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과학Ⅱ 8번이 복수 정답 처리될 경우 대학입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의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기존 정답자는 표준점수와 등급이 떨어지는 반면 복수정답 수험생들은 원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와 등급이 오르게 된다. 이에 변별력이 떨어져 주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의대 지원 수험생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이 66%의 수험생 중 1만1000여명이 표준점수가 1점 오르고, 이중 4000여명은 등급도 한 등급씩 상승할 것으로 이투스청솔 측은 예상했다.

그러나 1~2등급에서는 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2점씩 오르는 탓에 복수정답자 중에서 2등급에서 1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주로 등급 상승은 3등급 이하에서 있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정답을 맞혔거나 다른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들 대부분은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평균 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가 1~2점 떨어지고, 각 등급 커트라인을 턱걸이 했던 3000여명 가량은 등급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을 가늠해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 정답자 중 일부는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등급하락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영어 영역 25번의 경우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 ④번을 선택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인천대교 인근 해양장 10년 새 2배

바다에 화장 분골을 뿌리는 해양장(葬)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 해양장 횟수는 2003년 551회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1001회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913회로 전년도보다 약간 줄긴 했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인천에서 해양장은 주로 인천대교 인근 19번 부표와 23번 부표에서 이뤄지고 있다.

항로표지 부표를 중심으로 해양장이 이뤄지는 것은 유골을 뿌린 지점을 유족이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장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인천시는 환경점검 결과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내년부터 '여초시대'

여성 인구 남성 첫 추월　2017년 고령화사회 진입

내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대변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3일 장래인구추계 보고서를 통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여성인구는 2031년 2626만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성인구는 2029년 2591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5.3이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전체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639만명인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712만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서며 유소년(0~14세) 인구(684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게 된다. /김태균기자 kt@

경희사이버대학원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12월 12일(금)까지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경영전공, 문화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 글로벌한국학 등 총 4개 전공에 지원 가능하다.

대학원 입학 관련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grad.khcu.ac.kr) 혹은 전화(02-3299-8800)로 확인할 수 있다.

덕성여대 사랑의 김장담그기

덕성여자대학교는 20일 학생회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14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덕성여대 교직원 및 외국인 파생은 물론 도봉구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모두 1000kg의 김치를 담가 도봉구 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130여개 가정에 전달했다.

성신여대 박물관, 향기 전시회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이 '향기'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를 연다. 수정캠퍼스 박물관이 '사람의 향기를 느끼다' 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정그린캠퍼스 정원박물관 복식박물관은 '전통의 향기를 입다' 전과 역시 운정그린캠퍼스의 자연사박물관의 '자연의 향기를 보다' 전이 각각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린다.

크리스마스 여행 한국으로

metro HongKong

한류 열풍에 환율 최저

크리스마스를 한 달 여 앞두고 많은 홍콩인이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관광 상품이 인기다.

홍콩관광산업협회가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 일반·호화 패키지 상품 가격이 평균 4%, 11% 감소했다.

가격 하락폭이 가장 높은 것은 홋카이도 호화상품으로 57% 하락해 2만8888홍콩달러(약 414만5000원)다. 일반 상품으로 가격 하락폭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으로 5일 관광상품 가격이 24% 감소, 4099홍콩달러(약 58만8000원)다.

최근 홍콩에서는 엔화 약세로 홍콩달러 대 엔화 환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일본 관광 열풍이 뜨겁다. 최고가를 기록한 5만1800 홍콩달러(약 743만3000원)의 온천 호화 패키지도 곧 매진될 전망이다.

홍콩에서 한류 열풍이 거센 데다 원화 환율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여 한국 여행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했다. 또 일부 여행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국 여행 일반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여우 한 마리 찍어 볼까

metro Russia

광부 사진작가 눈길

ахтёр снимает лис

러시아 극동 지역의 광부 이반 키슐로프가 찍은 여우 사진이 최근 러시아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키슐로프는 "몇 년 전부터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다"며 "새로운 피사체를 찾다 여우를 찍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우는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이며 내 쪽으로 접근할때가 많다. 하지만 경계심을 풀고 여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며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키슐로프는 여러 사진 공모전에 출품, 입상한 바 있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다. 2011년에는 '러시아의 야생동물'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다리야 누카노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美 위안부 기림비 선긋기

한일 네티즌 백악관 청원에 "지방정부 소관"

미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문제와 관련, 연방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는 일본계 미국인 네티즌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백악관은 "지방 공원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 소관"이라며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 관리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백악관의 입장 정리로 한국과 일본의 사이버 전쟁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7월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 최초로 세워졌다. 이를 두고 양국 네티즌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네티즌의 주장과 소녀상을 보호하라는 한국계 네티즌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각 입장에 동조하는 백악관 웹사이트 청원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 백악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백악관은 뉴저지와 뉴욕 주의 위안부를 기리는 기림비와 거리명을 철회해달라는 일본 네티즌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독도 분쟁과 관련해서도 이날 함께 올린 답변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독도 영유권 다툼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제하며 다뤄온 사안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양측이 내리는 그 어떤 결론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23일 일본 나가노현 하쿠바무라의 주택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AP 연합뉴스

日 나가노현 북부 6.7 강진

건물 붕괴 수십명 부상 … 쓰나미 우려 없어

일본 나가노현 북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 수십명이 다쳤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지진이 두 차례 잇따라 발생한 뒤 다음날 오전 7시까지 45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NHK는 경찰이 부상자 수를 39명으로 중간 집계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상당수 건물이 붕괴되고 주요 도로에 균열이 생겼다. 나가노시와 하쿠바무라를 잇는 국도 406호선은 산사태로 막혔다. 나가노와 야마가타, 조에쓰, 도호쿠, 아키타 지역의 신칸센 운행도 중단됐다.

하쿠바무라와 오마치시에서는 1600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다. 일부 주민은 수도관이 파열돼 애를 먹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주일 안에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서부 쓰촨성 간쯔장족자치주에서도 22일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했다. /조선미기자

히틀러 수채화 얼마? 1억8000만원에 팔려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수채화(사진)가 약 1억8000만원에 팔렸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뉘른베르크의 경매사 바이들러는 히틀러의 수채화 한 점이 13만 유로(약 1억8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경매사 관계자는 중동의 한 구매자가 이 작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 그림은 뮌헨 시청의 모습을 담은 가로 22㎝, 세로 28㎝ 크기의 수채화다.

1914년 작품으로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가 20대 시절 그린 것이다. 히틀러는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히틀러의 작품은 종종 경매에 등장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김상돈 경민대 교수 "孝 문화 확산하는 데 일조할 것"

사람이야기

시사만평가이자 국제 효 만화센터장인 김상돈 경민대학교 광고홍보제작과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확고하면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인물'이다. 오랜 시간 만평가로 활동하며 얻은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설득력 있게, 거침없이 쏟아냈다.

◆소신을 꺾지 않았던 시사만평가

김 교수는 1986년 대학 입학 후 학보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사만평을 그려왔다. 광고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시사만평을 그리기 시작한 계기에 대해 "카피 한 줄에 광고 내용이 좌우되듯 사건을 한 컷, 네 컷에 함축해 표현하는 시사만평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린 그림은 만화 속에 함축적으로 숨겨진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고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을 했을 때 뿌듯하다"고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만평은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그렸던 '2005년 을해 생긴 신(新) 한자'라는 작품이다. 이 만평은 3분만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완성한 것으로 '말 짱 황', '황만 없은 국', '뚜껑 열린 만' 등 기존 한자를 비꼬아 표현해 당시 사건을 풍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다.

만평이란 '만화로 하는 평론'인만큼 팩트를 기반으로 한 작가의 주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특정 정당을 비판했을 때 그 정당으로부터 비난, 협박이 들어오는 경우도 다반사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떤 압박에 자신의 소신을 꺾으면 그것은 만평가가 아닌 삽화가에 불과하다. 진정한 만평가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전통적이 해박,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문학·예술 경시 풍조 우려스러워

한 명의 교육자로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철학·인간성 부재에 대해 우려했다. '정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중독과 자극 위주로 향하고 있는 문화가 우려스럽다"며 "이런 경향이 전체 산업과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 인문학과 예술이 경시되면서 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웹툰, K팝 등 우리 콘텐츠가 눈부신 결과를 얻고 있다. 예술이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당장 취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논리로 예술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경민대 국제 효 만화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회는 아이들의 인성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인성의 시작인 효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산다"고 강조했다. '효'는 경민대의 교육 철학으로, 매년 경민대에서는 '국제 효 만화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고리타분한 이미지의 '효'를 보다 수평적이고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화라는 수단을 선택해 이를 공모전으로 만들었다.

정동희 디지털콘텐츠과 교수의 도움으로 시작된 국제 효 만화 공모전은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초·중·고등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1만 4000점의 작품이 공모전에 응모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공모전이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역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문학과 예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 자리에 효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즐겨라'라는 말을 건네고 싶다. 고난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인내하고 기다려라."

/장혜진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국제 효 만화센터장이기도 한 김상돈 경민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효가 곧 인성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작은사진은 김상돈 경민대 교수가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만평인 '2005년 을해 생긴 신(新) 한자'.

/손진영기자 son@

안보공단, 일본과 보호구 상호 인증 협력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21일 서울 럭키던 호텔에서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TIIS)와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상호인증에 협력키로 하고, 국내 보호구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인정하기로 한 시험성적서는 4개 품목으로, 안전모와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이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80여개 업체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는 이번 국내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일본측의 인정에 따라 국내 업체의 일본 수출에 따른 보호구 제품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일본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와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관련 정보의 사업장 공유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최초 금융상품 연계 체크카드 탄생

CMA 우대수익률 및 금융상품 추가수익률 혜택!
30% 소득공제 혜택까지
이제 체크카드 한 장으로 누리세요

소득공제
30% 혜택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코스닥
1964.84	543.98
(+6.60)	(+4.05)

금리	환율
2.16	1113.00
(변동없음)	(▼2.00)

블랙프라이데이' 맞불세일

유통업계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불세일에 돌입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풍경. /신세계 제공

휘발유 1700원대 눈앞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7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23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는 이번주(23~29일) 서울 평균 가격이 ℓ당 1803원으로 지난주 1809.94원보다 7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예측가격의 오차범위가 ±9원으로 170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 /김유리기자 yulim@

로또복권 제62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6	7	20	21	39	1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165,134,6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1,207,120
3등	5개 숫자 일치	1,333,10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삼성이 하면 봉사도 남다르다

'안전조명''브레이크' 단 사랑의 리어카 전달
태국서 쓰나미 예방 나무지지대 고정 작업도

#삼성테크윈에는 기술봉사팀이라는 독특한 조직이 있다. 기술명장과 기능장 자격을 가진 창원사업장 임직원 18명이 만들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리어카를 제작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낡은 리어카로 힘들게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한 '사랑의 리어카' 37대를 제작해 노인가정에 전달했다.

사랑의 리어카는 노인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조명과 브레이크 장치 부착, 분리 수납이 가능한 구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특히 김원록 마이스터(대한민국 용접 명장)는 리어카에 설치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개발해 실용신안등록을 마쳤고, 경량화로 55㎏이 넘는 기존 리어카의 무게를 33㎏으로 줄였다.

삼성그룹이 연말을 앞두고 온정 나누기 릴레이를 하고 있다.

제일모직 리조트·건설부문은 SNS 캠페인으로 사랑의 연탄 10만장을 마련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에버랜드' SNS를 통해 지난 12일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 연탄' 게시물의 좋아요, 공유, 리트윗 등 개별 클릭 1건당 연탄 1장씩 적립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SNS 회원들의 열띤 호응으로 게시 4일 만에 10만장을 적립했다.

이밖에도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3일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된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강원도 철원을 찾아 환경정화, 먹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연탄배달봉사에 참가한 임직원들의 모습 /삼성그룹 제공

삼성생명 직원 30명은 지난 10~15일 태국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그린 글로벌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태국 뱃자부리 갯벌에서 맹그로브 나무를 지지대에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 열대나 아열대 갯벌·하구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는 쓰나미 방재 또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효과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어람 사원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후원이나 기부 형식의 봉사만 해왔나, 직접 맹그로브를 심어보니 보람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KT, 中·日과 모바일 교통카드 협력 제안 KT는 중국 항저우 서호에서 열린 SCFA 회장단 총회에서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에 혁력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홍창균 KT 부장, 중국 차이나모바일 시귀화 회장, NTT 도코모 가토 사장. /KT 제공

수익형부동산 '대형화' 바람 분다

대형건설사 진출, 차별화 위해 몸집 키우기
다양한 편의·휴게시설 갖춰 임차인 확보전

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의 몸집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대형화 바람이 오피스텔을 거쳐 최근 들어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옮겨온 것이다.

과거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중소건설사가 공급했다. 그러나 탄탄한 자금력과 시공력을 가진 대형건설사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진출하면서 랜드마크급의 대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송도 스마트밸리'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이 인천문학야구장의 7배인 29만㎡에 달하며, 지식산업센터동을 포함해 기숙사동, 근린시설 등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남향 위주로 배치돼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보육시설, 세미나실, 대회의실, 체력 단련실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도 갖췄다.

현대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6블록에서 공급하는 '현대 지식산업센터'도 연면적이 16만㎡에 이른다. 지금까지 1개동의 나홀로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공급됐던 것과 달리, 이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5층, 3개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3개동이 주차장을 공유해 동간 연계성이 뛰어나고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아파트가 대형화되다 보니 단지 내 상가도 덩달아 덩치가 커졌다.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 분양할 더블유 주상복합 상가 '더블유 스퀘어'는 연면적 9만8472㎡의 스트리트형으로 지어진다.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 투시도.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지상 2층에는 바다 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12m에 이르는 광폭 테라스가 설치된다. 또 1층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이 마련되고, 상가 바로 앞에는 공원을 연상케 하는 넓은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이석희기자 [illegible]

내년 국내 車판매 사상 최대치 예상

내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2.0%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23일 '2015년 자동차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내시장 판매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165만4000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는 ▲노후자 증가로 인한 제자 수요 증가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중형차 등 신차 출시 ▲수입차 호조 등이 환인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제약받는 점 등은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경차는 신차 출시와 각종 지원정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형세단은 SUV와 대형차로 수요가 이동해 판매가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차는 원화강세 및 FTA(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해보다 14.8% 늘어난 22만5000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중국과 인도의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4.2% 늘어난 87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리기자 [illegible]

"리딩뱅크 탈환 돛 올렸다"

KB 윤종규號, LIG손보 인수 첫 관문 등 난제 수두룩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이 지난 21일 공식 취임, 리딩뱅크 탈환을 위한 돛을 올렸다.

그는 취임식에서 "1등 금융그룹의 위상 회복이라는 꿈을 이루고, 대한민국 금융의 새 역사를 만들자"고 포부를 밝혔다. 최초로 내부 출신인 윤종규 회장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KB 임직원들도 '리딩뱅크'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고객신뢰 회복, 수익성 강화, LIG손보 인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그가 '혁신 리더십'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윤 회장은 단장 KB의 위상을 회복하고 글로벌 뱅크로 도약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그동안 KB가 겪은 일련의 악재로 직원 사기는 물론 고객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리딩뱅크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직원의 자긍심 회복 ▲고객 신뢰 회복 ▲차별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수익성 강화가 극복해야 최대 과제다. KB금융이 리딩뱅크로서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전통적인 강점 분야인 소매 금융에서 확고한 입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종규 신임 KB금융 회장 겸 은행장이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점 수는 1161개, 직원 수는 2만1000여명으로 소매금융 영업망 기준으로는 여전히 국내 최대 수준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소매금융 본아 최고 은행이라는 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도 절실한 시점이다. KB금융은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다.

윤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 자리에서도 "LIG손보 인수를 강하게 희망하고, 당국에 승인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비중이 높은 KB 입장에선 수익 다각화를 위해 LIG손보 인수가 꼭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LIG손보 인수 승인 건을 사실상 미뤄왔다. 그러나 이경재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들이 KB 정상화를 위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의 갈등 해소와 LIG손보 인수 마무리는 윤 회장의 첫 번째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윤 회장은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두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출신이나 연고는 묻지 않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을 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쓸데없는 청탁은 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청탁한 이는 수첩에 기록하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주택은행 출신 간 파벌싸움은 KB금융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리딩뱅크로 도약하기 위해선 실력 위주의 인재발탁이 필수 조건임을 윤 회장은 강조했다.

금융권은 윤종규 신임 회장이 지금껏 KB를 이끌었던 CEO들과 달리 내부 사정에 정통한데다 은행장을 겸임하며 국민은행의 리딩뱅크 위상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앞날이 어둡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기계산업 금융 서비스 지원 IBK기업은행은 21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과 '기계산업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자본재공제조합이 설립한 (주)한국기계거래소에 5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권선주 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정지택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겸 자본재공제조합 이사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삼성카드, 직구족 위한 이벤트

삼성카드가 해외 직구족을 위한 알뜰쇼핑 행사를 준비했다.

삼성카드는 미국 연말 세일 시즌을 맞아 캐시백과 배송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땡땡 쇼핑' 이벤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포함해 해외 가맹점에서 삼성카드를 이용한 고객 100명은 추첨을 통해 해외 이용금액의 최대 3배까지 캐시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패션 디자인 전문 온라인 스토어 '육스닷컴'에서 삼성카드 결제시 25%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삼성카드 프리미엄라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받은 후 육스닷컴에서 상품 결제시 해당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캐시백 혜택도 마련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외 직구 몰테일 쇼핑몰인 '테일리스트'에서 삼성카드 아멕스로 결제한 고객은 이용금액의 3% 캐시백 제공 또는 12개월 해외 이용금액 분할 납부 수수료 전액이 캐시백된다. 해외 이용금액 분할납부 서비스란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을 본인의 여건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 삼성카드3으로 1000 달러 이상 결제한 고객은 12월 5일까지 12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alice0903@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보험 판매

한화생명, '특화 CI보험' 각종 혜택 공세

한화생명은 여성만을 위해 차별화 된 CI보험으로 개발한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대질병(CI, Critical Illness)을 보장한다. 또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루푸스신염, 다발성경화증 등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도 특약으로 평생 보장해준다.

상속자금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착안해 사망보장을 극대화했다. 기존 CI보험은 CI진단자금으로 가입 금액의 80%를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인 20%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됐지만 이 보험은 40%까지 사망보장을 높여 최대 12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병상태(LTC)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중증 치매상태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시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장, 성인병보장, 생보장, 재해 입원 수술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노후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전환이 가능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고객 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 가입 시 2.5% 할인되며 보험료 자동이체시 1% 할인. 한화생명과 협약된 단체의 종사자가 가입하면 1.5%의 단체할인 혜택도 있다. 중복할인 제외 등을 고려하면 최고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높은 보험금에도 불구하고 월 최저보험료는 5만원으로 저렴하다. 비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로 여성이며 35세 여자가 20년납, 주계약 3000만원, 특약으로 CI추가보장 2000만원, 여성특정4대질병보장 1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7만5730원이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보장하는 최적의 상품"이며 "여성에게 부족한 사망, CI보장을 보험료 갱신 없이 평생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한화생명 최초의 여성 전용 CI보험"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

윤인식(왼쪽) 협회장, 산업은행 이대현 기획관리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 소아암 환자 위해 헌혈증

KDB산업은행은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와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사랑나누기-산은가족 헌혈캠페인'을 통해 열리고 있는 이번 활동은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있는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지난 9월 23일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임직원들과 헌혈 캠페인을 통해 1004매의 헌혈증을 기증받았다.

이대현 KDB산업은행 기획관리부문장은 "통합전 3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헌혈증서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희기자

'연말 배당'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170개사 7조8100억 규모… 통신·유틸리티·금융업종 유망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성공적인 배당투자를 위한 관심이 커졌다.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인 데다 정부도 배당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배당 기대감이 높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200종목의 연말 배당은 7조81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 199개 기업 가운데 170곳이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들의 연말 배당수익률은 지난해보다 0.15%포인트 증가한 1.19%로 예상됐다.

김영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금융·화장품 등 소비재, 유틸리티 등 이익 개선 기업과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이 적용되는 공기업, 3월 결산법인에서 12월로 결산월을 바꾼 기업 중심으로 배당 증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막판 조율 중인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거론되고 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던 대기업들도 최근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저금리 속에서 투자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한층 두드러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포트폴리오는 배당주와 지배구조 관련주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 이후 국내 500개 기업의 누적 수익률과 이 중 고배당 종목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는 12.9%인 데 비해 고배당군은 32.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고배당군이 전체 평균을 2.5배 이상 웃돈 셈이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배당투자가 유망한 업종으로 통신, 유틸리티, 증권, 보험을 제시했다.

실제로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배당주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최근 1달간 배당주펀드에 4203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연말이 다가온 1주일새 1239억원이 들어왔다.

배당주펀드의 투자 수익률도 견조한 편이다.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 중에서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로서 23.82%를 기록했다.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과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KB퇴직연금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 등도 올 들어 15%~19%의 수익을 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소외계층에 쌀과 김치 나눠요" NH농협카드는 23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기금 1억원을 '하모니 나눔' 재단에 전달하고 김장김치를 담그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쌀과 김장 봉사활동에는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신응환 농협카드사장, 농협카드 봉사단 등이 참여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갔다. 김주하(오른쪽 첫번째) 농협은행장과 신응환(왼쪽 첫번째) 농협카드 사장 등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농협카드 제공

난방비 줄이는 겨울나기 방법

편순이 주부 경제학

날씨가 추워지면 주부들은 겨울철 난방비 걱정부터 하기 마련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집집마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자칫 공과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절약하는 습관이 절실할 때다. 겨울을 현명하게 나기 위한 '겨울 절약 살림법'을 알아보자.

우선 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생활 습관부터 고치는 것이다. 오래 샤워를 즐기는 습관을 고치고, 양치를 할 때는 칫솔에 물을 적신 후 컵을 이용한다. 또 수도꼭지와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해 새는 물이 없도록 한다. 세탁기는 빨랫감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좋다. 마당에 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위치에 물을 뿌려 쓸데없이 증발되는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출시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2~3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보일러를 켜두는 게 좋다. 한 번 보일러를 끄면 완전히 차가워진 집안을 다시 데우는 데 많은 가스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외출 모드'로 설정해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적당히 집 안을 데우기만 하면 돼 가스 사용이 절약된다. '외출 모드' 설정은 보일러 배관의 동파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주부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냄비 뚜껑을 계속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습관은 가스 사용량을 늘리는 주범! 냄비의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두면 냄비 내부와 공기가 접촉하는 영역이 넓어져 열기가 식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이 배로 길어지게 된다.

또 전자레인지의 전기 요금을 걱정해 가스레인지 사용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컵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을 끓일 때는 가스레인지보다 전자레인지가 낫다는 사실!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이면 냄비가 달궈지고 그 열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경우 한 컵의 물 정도는 몇십 초 만에 끓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여밖에 어떤 기계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법. 보일러 역시 1년에 2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열전도율이 좋아지고, 가스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정리=기자

/이미지

LIG손보 '매직카다이렉트' 금상 수상

LIG손해보험은 회사 상품인 'LIG매직카다이렉트'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하모니스홀에서 열린 '2014년 온라인광고대상'에서 퍼포먼스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금상을 받은 이 광고는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자기야 자기뭐봐' 캠페인으로 제작됐다.

이 광고에는 30대 한 부부가 등장해 1층 높이에서 발로 던진 자키를 받아내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매직(Magic)'카 브랜드가 각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광고는 약 두 달 동안 270만 건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해 일반 유튜브 캠페인 대비 35%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출시한 LIG매직카다이렉트는 오프라인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평균 13.4% 저렴하면서도 기존 보상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김형석기자 khs@

왼쪽부터 기군네 LIG손해보험 신채널본부장 상무와 LIG매직카다이렉트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역삼동 하모니스홀에서 열린 2014년 온라인광고대상에서 퍼포먼스 부문 금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G손해보험 제공

中 철강산업 고도화 "한국엔 기회"

산업연 "기술 판매 방식 이익 창출"·철강협 "아세안 통상마찰 해결 노력"

중국 철강업계가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철강산업 고도화 과정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철강사들이 환경 관련 설비를 증설하고 공정 혁신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은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고체로 만드는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쇳물을 뽑아내도록 만든 포스코의 친환경 신공법인 '파이넥스'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자동차와 가전, 조선 등의 산업이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들 산업에 필요한 한국산 고부가가치 강종의 수출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철강업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2009년 1.2%에서 2011년 1.57%, 2012년 1.54%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1%를 밑돌고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허베이강철과 바오산강철, 안산강철 등 중국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철강사들은 자동차용 고기능성 판재류와 에너지용 강관 등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 중국이 해외 광산에서 생산하는 철광석의 양은 연간 1억t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우리 철강업계도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국의 중간재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중 FTA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은 수입 철강재에 관세를 거의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분쟁)에 대한 견제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0일과 22일 태국, 싱가포르에서 각각 한·태국 철강협의회와 제3차 한국철강협회&아세안철강위원회(AISC) 협력회의를 열고 철강수입규제에 대한 사전 억제 활동에 나섰다.

한국철강협회 등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철강업계와 제3차 한국철강협회 아세안철강위원회(AISC)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제공

한국 대표단은 최근 아세안 각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대화를 통한 통상마찰 해결의 원칙을 강조했다.

국내 철강업계의 대아세안 철강재 수출은 지난해 6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철강수출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올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21건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의 최대 수입규제지역이기도 하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두산重 기술직 '마이스터' 선정 두산중공업이 기술직 최고 영예인 '마이스터' 제도를 만들고, 26일 올해 처음으로 9명의 마이스터를 선정했다. 이들은 최소 15년 동안 특정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으로 기술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이번에 마이스터로 선정된 김현관 기술수석자, 조한철 기술자, 김해 기술자장(왼쪽부터)이 도면을 보며 제품 제작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제공

경기도, 1순위 마감 단지 최다

경기도가 올해 1순위 마감 단지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올해 전 주택형이 1순위로 마감된 단지는 총 128곳이다. 이 중 경기는 21곳이 1순위 마감돼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 21곳 중에는 2곳을 제외한 19곳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해당돼 눈길을 끈다. 실제 ▲위례신도시가 5곳 ▲동탄2신도시 4곳 ▲미사강변도시 3곳 ▲광명역세권 2곳 ▲부천옥길지구 2곳 ▲수원세류시 1곳 ▲시흥목감지구 1곳 ▲의정부민락2지구 1곳 등이다. 행정구역상으로 ▲하남시 5곳 ▲화성시 4곳 ▲성남시 3곳 ▲광명시 2곳 ▲부천시 2곳 ▲광주시 2곳 순으로 많았다.

지방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는 각각 18곳의 1순위 마감 단지를 기록했다. 서울은 12곳이 1순위 마감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3곳 포함됐다. /김두탁기자

<2014년 시도별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단지수>
/부동산써브 제공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경남	광주	세종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충북	울산	제주
21	18	18	12	11	10	10	8	6	4	3	3	3	1

실용성 갖춘 복합기 출시 줄이어

브라더, 한국후지제록스, 신도리코 등 절전기능 강점

사무실에 빠지지 않는 IT기기인 복합기 제품의 효율성과 내구성 등 실용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브라더는 고속 인쇄 환경에 적합한 레이저 제품에 대용량 토너를 장착, 소모품 사용가능 기간을 늘렸다. 또 토너 절약 모드를 지원해 초안 수준의 문서를 인쇄할 경우 토너 사용량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 했다.

잉크젯 제품 역시 A4 최대 2400장까지 인쇄가 가능한 초대용량 잉크베네핏 카트리지로 대용량 인쇄에도 출력물의 품질을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컬러의 카트리지만 따로 교체가 가능해 불필요한 잉크 낭비를 최소화 했다.

한국후지제록스의 경우 최근 출시한 도큐센터 SC2020 에 출력물의 농도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토너 절약이 수월하다. 또 사용자 조건에 따라 컬러 인쇄 가능 여부 및 출력량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2kWh(킬로와트시)이며 절전 모드에서의 전력소비는 1.4W(와트)로,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 정부의 국제 프로그램인 '에너지스타(ENERGY STAR)'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또 다른 복합기 제품인 '아페오스포트 Ⅳ'와 '아페오스포트-V' 시리즈에는 '스마트 웰컴아이(Smart WelcomEyes)' 기술을 적용해 평소엔 절전모드를 유지하다가 사용자가 복합기에 다가서면 스스로 동작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리코는 '파워 세이빙' 기능을 통해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있다. 이 기능은 프린터 작동 시 필요한 부분에만 전력을 공급하며, 슬리핑 모드에서는 필요한 CPU와 메모리에만 전력을 공급한다.

캐논비즈니스솔루션은 프린터가 작동할 때만 정착필름이 히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온디맨드 서피' 기술을 주요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엡손은 자체 LED기술을 통해 인쇄 시 전력 소비량을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제주 '리젠트마린 더테라스' 분양

미래자산개발은 21일 제주시에 들어서는 호텔 리젠트마린 2차 '더테라스'의 모델하우스를 서울·대구·부산·제주 지역에서 동시에 오픈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전용면적 24~117㎡의 349실로 구성된 이 호텔은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분양한 호텔 리젠트마린은 1차 '더블루' 327실과 함께 676실의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급 대규모 호텔로 지어진다.

호텔 리젠트마린 2차 '더테라스'가 위치한 탑동은 제주국제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에 가까워 고급호텔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다. 용두암, 목관아, 제주민속박물관 등 관광지도 가깝고, 주변에 먹거리와 쇼핑, 문화시설 등도 다양하게 분포됐다.

모든 객실에 테라스를 도입해 지중해 고급 호텔 스타일로 꾸며 이용객들은 여행 중 고급스러운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 분양 문의 02-583-4300 /김학균기자 [illegible]

'누구나 믿고 타는 중형차'로 사랑

▲한 줄 평가: 부드러운 변속과 인상적인 승차감이 돋보인다 ▲별점: ★★★★(만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눈1/2)

■닛산 알티마

닛산 알티마는 현대 쏘나타를 비롯해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포드 퓨전 등과 경쟁하는 중형차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10월에 1858대가 판매되면서 수입 중형세단 선두를 달리는 캠리(1965대)를 바짝 쫓고 있다. 미국에서도 알티마는 인기 중형차 톱3에 항상 포함될 정도로 '믿고 타는' 모델이다.

최근에는 2015년형 모델이 선보였다. 새 모델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전장비와 편의장비를 더한 게 특징이다. 기존에 없던 4방향 조수석 파워 시트, 머드 가드, 플랫 타입 주차 센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이 추가된 장비다.

2014년형 모델은 첨단 안전장비를 더한 '테크' 모델이 가세하면서 2.5, 2.5 테크 및 3.5 테크 등 총 3가지 트림으로 다양화됐다. 이 가운데 시승차는 3.5 테크 모델이 배정됐다.

알티마 3.5가 직접 경쟁하는 상대는 캠리 3.5와 어코드 3.5다. 쏘나타와 퓨전은 3.5ℓ 엔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 알티마 3.5의 최고출력은 273마력으로 캠리(277마력)와 어코드(282마력)보다 약간 낮다. 최대토크는 알티마가 34.6kg·m, 어코드가 34.8kg·m, 캠리 35.3kg·m으로 역시 경쟁차보다 열세다.

대신 알티마의 공차중량은 1530kg으로 경쟁자(캠리 1565kg, 어코드 1625kg) 중 가장 가볍다. 이를 바탕으로 출력당 무게비를 계산해보면 알티마는 5.60, 캠리는 5.65, 어코드는 5.76을 나타낸다. 출력당 무게비는 1마력이 담당하는 차체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알티마를 실제로 운전해보면 이 데이터가 이해된다. 가뿐하게 출발한 차는 중속을 지나 고속까지 경쾌한 감각을 이어간다. 무단변속기를 장착한 차의 대부분이 밋밋한 가속감을 보여주는 데 비해 알티마 3.5는 박력 넘치는 가속이 인상적이다. 2.5 모델에 없는 패들 시프트와 수동 모드도 운전의 즐거움을 더한다. 방음대책에도 신경을 써 급가속 때 불쾌한 소음이 전 세대 모델보다 대폭 줄었다.

승차감은 부드러우면서도 지나치게 무르지 않다. 그러나 엔진 출력을 타이어가 받쳐주지 못하는 게 아쉽다. 215/55R17 사이즈의 타이어는 속도를 높이거나 핸들링을 즐기기에 부족한 느낌이다. 따라서 한 등급 위의 사이즈가 적당할 듯하다. 참고로 어코드 3.5의 경우는 235/45R18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돼 있다.

경쟁차 중 유일하게 무단변속기를 장착한 알티마 3.5는 도심 연비에서 강세를 보인다. 도심에서 알티마 3.5는 9.2km/ℓ의 연비로 캠리(8.9km/ℓ), 어코드(8.8km/ℓ)를 앞선다. 그러나 알티마의 고속도로 연비가 뒤진 까닭에 세 차종의 복합 연비는 10.4~10.5km/ℓ로 거의 비슷하다.

2015년형 테크 모델에 더해진 장비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 등 3가지다. 이들 장비는 최근 국산차에도 활발히 장착되는 것들로,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높다. 이 장비가 추가되면서 알티마 3.5는 가격이 3770만원에서 3820만원으로 조정됐다. 더해진 장비를 감안하면 가격 인상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 모델은 최근 등장한 현대 아슬란과도 경쟁을 펼친다. 고급 사양을 갖춘 아슬란은 일부 수입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와 수입차의 심리적인 '벽'이 깨뜨릴 것으로 보인다. 알티마 3.5의 변신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다.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차, 아슬란 고객에 체험기회

현대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자사의 전륜구동 최고급 세단 아슬란 구매 고객에게 전통고택 등 품격 있는 삶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대차는 정숙성과 승차감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운 아슬란을 구매한 고객을 위해 ▲한국 고유의 고요함을 간직한 전통고택 ▲최고급 템플시설이 기본으로 갖춰진 골프텔 ▲고급 오디오 체험존 ▲영화감상을 위한 CGV 특별관 중 한 곳을 골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체험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간체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명함지갑 등 비즈니스 관련 소품,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아슬란 구매 고객 전원에게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내비게이션 무료 업데이트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박상욱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YF쏘나타	-	1 270	1 280	1 390	1 570
	그랜저HG	-		2 150	2 450	2 810
쉐보레	스파크	-	510	650	700	830
	말리부	-		1 820	1 850	1 930
	크루즈	-	1 220	1 250	1 310	1 590
폭스바겐	티구안	-	2 550	2 700	3 060	3 430
BMW	5시리즈	-	3 480	3 780	4 340	4 700
	3시리즈	-		2 820	3 320	3 450
벤츠	C클래스	-	2 790	3 150	3 160	3 630
아우디	Q5	-	3 090	3 630	4 330	4 760
폭스바겐	골프	-	1 840	2 180	2 330	2 28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벤츠, 2015년형 E클래스 시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강화된 안전과 편의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2015년형 E클래스를 출시했다.

2015년형 E클래스의 모든 모델에는 전방 차량과 간격이 좁거나 장애물이 탐지됐을 때 계기판 불빛으로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경고를 하는 충돌방지 어시스트 플러스(COLLISION PREVENTION ASSIST PLUS)가 적용됐다.

또 보빌렐로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Active Parking Assist including PARKTRONIC)와 S클래스에 적용된 360도 카메라, 키레스 고(KEYLESS GO) 패키지 등 다양한 안전, 편의 기술이 새롭게 적용됐다. 특히 친환경 디젤과 사륜 구동 모델의 인기를 반영해 뉴 E 350 블루텍 4MATIC을 새롭게 출시한다.

업그레이드된 2015년형 E클래스는 ▲E 200 아방가르드 ▲E 220 CDI 아방가르드 ▲E 250 블루텍 4매틱 아방가르드 ▲E 300 엘레강스 ▲E 300 아방가르드 ▲E 300 4MATIC 아방가르드 ▲E 300 블루텍 하이브리드 아방가르드 ▲E 350 블루텍 4MATIC ▲E 400 4MATIC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E 63 AMG 4MATIC 등 10개 세단 및 고성능 모델과 ▲E 200 쿠페 ▲E 400 쿠페 ▲E 200 카브리올레 ▲E 400 카브리올레 등 4개의 쿠페, 카브리올레 모델까지 14가지 모델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는 1947년 E클래스의 전신인 170 V 시리즈를 선보인 이후 60여년간 글로벌시장에서 1300만대 이상 판매되며 성공적인 프리미엄 중형 세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2009년 8월 국내에 선보인 9세대 E클래스는 출시 후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이다.

/임의택기자

수도 서울 '시위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정론탁설
유 병 렬
<언론인>

수도서울이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중인 지난 20일 하루만 해도 서울 도심 85곳에서 동시다발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2만 명이 넘고 투입된 경찰이 6000명에 달한다.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상인들이 생업에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관광객에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

종로 한 복판에서 무려 6시간이나 8000여명의 전국농업인들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반대와 쌀시장 개방저지를 위한 기두집회를 비롯, 수많은 단체들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역과 여의도에서 가졌고, 가락시장 엄대 유통 상인들의 …

노 집회로 온 종일 시내 곳곳이 소요로 하루를 보냈다.

물론 생존권 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절박한 사정으로 거리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그저 냉담하고 착잡하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불법시위가 판을 치고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시민들이 트라우마에 빠져 큰 고통을 받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시위문화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구호내용도 거칠어지고 있다. 여기에 동원되는 장비가 다양해지고 소음도 커지고 있다. 방법도 화형식이 일반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례행렬도 벌이고 있다. …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시위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기는 하나 이제는 준법시위를 착근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 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철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위 날짜와 장소, 시간 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선진화와 국민의식구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시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시위 질서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져야 수도 서울이 시…

포토프리즘 겨울 문턱에서

22일 오전 부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산책로를 걷고 있다. 산책로 주변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드리운 채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 손진영기자

방산비리 척결에 성역은 없다

뉴스룸에서
이 충 건
<편집위원>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주 정식 출범했다. 방위산업 개념을 넘어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다. 검찰·경찰·국방부·감사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의 정예인력 105명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정부내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매머드 급이다. 합수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 군검찰관 6명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은 성격상 구조적이고 복잡한만큼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방위사업관련 비리나 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최근의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 탐지기(HMS)납품과정의 비리가 대표적이다. 잠수함이나 군함이 움직일 수 없거나 좌초됐을 때 예인과 인양하는 임무가 부여된 함정에 참치잡이배에 장착하는 어군 탐지기 수준의 음탐기가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군함인 구조함이 '참치 음파탐지기'를 장착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방산비리 문제는 일일이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국산 어뢰개발, 개당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다. 여기에 적군의 소총탄에 뚫리는 방탄복 등 대한민국 국격에 먹칠을 하는 수준이하의 비리가 민낯을 드러낸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산 군납비리는 국가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방산비리를 4대강, 자원개발의혹과 묶어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과 대학 동기동창인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무기도입비리 발본색원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방사청 담당 요원을 전원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부터 관련부처, 군까지 한 목소리로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외치는 셈이다.

이번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방산비리 척결의 컨트롤 타워로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또 하나의 백년지대계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세상에 전해지는 3대 거짓말은 노인이 말하는 '늙으면 죽어야지' 노처녀가 읊조리는 '시집 안 간다' 장사꾼이 내뱉는 '밑지고 판다'는 선언(?)이다.

3대 거짓말의 잣대는 거짓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빈도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듣게 되는 말이지만 말에 뒤따르는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세상살이에 대한 인지상정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다.

'늙으면 죽어야지'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어감에서 전해오듯 삶에 대한 회한, 즉 나이가 많아져 몸이 노화되고 생각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여전히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삶의 정서에 대한 한탄인 셈이다. 두 번째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짐이 되지 않겠다는 존재로서 갖는 고귀함을 지키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첫 번째 해석을 정답으로 여긴다.

인터넷 시인 하상욱은 '모태솔로'를 '해박한 지식, 풍부한 이론'이라 서술했다. 노처녀-모태솔로가 됐고 '시집 안 간다'-골드 미스 되기가 됐다. '시집 안 간다'는 말을 거짓말로 듣거나, 그냥 하는 말로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럴 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해박한 지식, 풍부한 이론'이란 문구가 '시집 안 간다'와 중첩돼 읽힌다는 것이다. 의지와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소신과 정체성의 확립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세일". 값을 깎아 준다는 DC(디스카운트)로 통용되는 이 말은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특효약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밑지고 판다'와 동의어는 아니다. 정보공유 논문세상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밑지고 파는 시늉이 있을 뿐이란 걸 모두 안다.

궁금한 건 장사꾼은 왜 정가를 두고 밑지고 팔기를 멈추지 않느냐는 점이다. 어쩌면 정가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형성된 균형가격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상품에 매겨진 값일 뿐이니까.

3대 거짓말 중 우리가 청산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밑지고 판다'는 말 아닐까 싶다. 적절한 정가를 매기고, 정가에 대한 지불을 인정하는 시장을 만드는 일은 교육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백년지대계다.

/(인디자인출판사 www.ffx.co.kr) 대표

반복되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

기자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의 후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올해 수능시험이 또 다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논란을 1년 넘게 끌다가 최근에야 잘못을 인정한 뒤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내놨다.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명백한 출제 오류라고 지적했지만 평가원은 곧바로 취지 않고 미적대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답 처리된 1만8884명의 성적을 재산정하고 이 응시자들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수능에서도 생명과학 II와 영어 영역이 출제 오류 논란에 휘말려 수험생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은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하고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을 대기 발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책임이 큰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민간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손을 대지 못했다. 현직에 없으면 책임이 면탈되는 관행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후속 대책 실행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이하다.

입시교육 위주인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사실상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앤이은 수능 오류 사태를 계기로 수능 체제를 근본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조가 밑바닥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지엽적인 오류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정 관념 깬 제품 매출 쾌속행진

'발상의 전환'으로 소비자에 사랑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다.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이나 생각을 말한다. '늘 그래 왔던 것'에 익숙해 변화를 주게 되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최근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깨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다. '감자칩은 짭짤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달콤한 버터 맛을 앞세워 없어서 못 팔 정도다.

23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제품은 출시 초인 9월에는 16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하지만 10월에는 매출이 4배(336%) 이상 늘면서 70여 종의 감자 스낵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감자칩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프링글스'는 3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던 대형마트 PB(위탁 생산하고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는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대형마트 PB 상품은 단지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벗기고 기존 브랜드 상품(NB)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최상위 프리미엄 PB 브랜드인 '프라임 엘 골드(Prime L.Gold)'를 선보인 것이다.

유기농 프리미엄 상품인 '리얼 과일잼(290g)'의 경우 기존 브랜드 상품보다 2배 가량 많이 팔리며 프리미엄 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이 일반 PB 상품보다 2배 가량 비싸고, 프리미엄 브랜드 우유 상품과 비슷한 이 업계의 PB상품인 '하루 1000원 귀한 우유(750ml)'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본래와 다른 새로운 기능으로 탈바꿈하며 주목받고 있는 상품도 있다.

이사철 상품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에어캡'과 거실이나 방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설치하는 '놀이방 매트'는 겨울철 일종 난방용품으로 자리 잡았다.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은 당초 제품 용도를 벗어나 겨울철 실내 외풍 차단 용도로 인기를 끈지 오래다. 롯데마트에서 올해 11월 들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3주 만에 10만 개 가량 판매됐고 전월 대비 매출이 377.9% 신장했다고 한다.

'아동용 놀이방 매트'도 층간 소음 방지 어린이 부상 방지가 원래 제 역할이었지만 겨울철 보온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11월(1~20일) 매출이 전년보다 36.2%, 전월 대비 75% 증가했다.

'베이킹소다'는 요리 재료에서 천연 세정제로 영역이 확장된 품목이다. 베이킹소다 시장은 연 100억 원 규모로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170% 신장했다. 롯데마트의 올해(1~10월) 베이킹소다 세제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밖에 '와인=병'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롯데마트가 선보인 '팩 트'형 레드 와인인 '레오 드 상부스팅(1.5ℓ)'은 프랑스 와인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와인 중에서도 판매량 기준 상위 10위에 위치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종이 팩 재질로 구성된 미니 와인인 '보니또 팩 와인 상그리아(250ml)'도 휴대가 편하고 미니 사이즈로 마니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의 남창희 상품본부장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진화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른 관점으로 시도한 작은 변화가 재미는 물론 만족도까지 높이며 상품의 트렌드를 바꿔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방한 식품' 잘나가네~

김치·찐빵·건강식품 인기

쌀쌀해진 날씨에 11월 들어 '방한 식품' 매출이 급증했다. 저장성이 뛰어난 식재료나 찐빵과 같은 대표 겨울 간식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 몰에서는 김장철을 맞이 절임배추와 포장 김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CJ몰이 11월 1주차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절임배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2% 신장했다고 밝혔다. CJ오클락에서는 정가네 해남 절임배추(20kg) 상품이 3000개 이상, 햇살재운 태양초 고춧가루(500g)은 4100개 이상 팔렸다.

이 같은 인기에 유통 업계는 김장재료 판매가 한창이다. 쿠팡은 12월 첫 주까지 '김장 준비 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겨울 시즌에만 반짝 판매하는 대표 간식거리도 인기다. 올해 일찍 한파가 불어닥쳐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겨울 간식 판매에 돌입했다.

CJ오클락에서는 찐빵, 호떡, 어묵탕, 유부보따리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찐빵은 총 40개 물량을 1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어묵과 유부보따리 시리즈는 3000원 대 가격에 준비됐다. 찹쌀·녹차·블루베리·씨앗호떡으로 구성된 화평동 호떡 4종도 개당 800원에 판매 중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면역력 강화 효능의 홍삼이나 기관지 관리에 탁월한 과일즙 등이 대표적이다.

위메프는 '환절기 건강 지키기 기획전'을 열었다. 웅진 홍삼정은 2병에 80% 할인가인 1만9000원이다. 호박즙, 야생칡즙, 사과즙 등이 준비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옛날에는 '생존'을 위해 겨울 먹거리를 찾은 반면, 최근에는 심리적인 '만족'과 '풍족'을 느끼기 위해 미리 겨울 음식을 구입하고 재워 놓는 경향이 있다"며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음식이나 맛·식감 등이 다양한 방한 식품 군이 겨울 내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illegible]

외국인도 참가한 CJ 김장나눔 행사 지난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CJ그룹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에서 CJ도너스캠프를 통해 꾸준히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김나운(오른쪽 세번째)씨를 비롯해 CJ나눔재단 공키유정의학교 학생들과 주한 미군 가족, 외국유학생들이 힘껏 만든 김장김치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CJ그룹 제공

강강술래 '송년모임 한우육회·현수막 서비스'

김장지원 국내산 전일염 증정행사도
떡갈비·돈가스 2+1, 와인 1+1 기프트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송년회 준비에 분주하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장소와 메뉴선정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동창회나 향우회, 사은회, 회식 등 각종 행사들이 몰리기 때문에 일찌감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예약해 놓는 것이 좋다.

월 평균 25만 명이 찾는 한식명가 강강술래(www.sullai.com)는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비롯해 15명 이상의 소점 단체룸 등 매장별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모임의 성격에 맞춰 품격은 물론 실속 있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자연과 어우러진 매장 내에서 하의 라이브공연과 산책을 즐기는가 하면 벽과 파티션에 장수를 자극하는 사찰의 정겨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산수를 그린 수묵화를 선보이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원 모임을 치를 수 있는 기획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2월 말까지 8인 이상 사전예약객 한우육회를 테이블 당 하나씩 서비스로 제공한다.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엔 한우육회와 함께 현수막을 제작 지원해준다. 단 구이메뉴(정식류·메뉴아워 제외) 주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한편 12월 3일까지 매장(정담·혼다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국내산 갯벌천일염 3kg을 무료 증정한다.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도 천일염(3kg)을 준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칠칠한 우떡갈비(1.05kg, 3만800원), 흑임자한돈너비아니(1.05kg, 1만9600원), 통등심돈가스(2.16kg, 2만3800원), 모짜렐라돈가스(2.16kg, 2만6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덤으로 주기 증정한다. 또 산타리타 히어로 카베르네쇼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면 산타리타 히어로 별로 1병을 선물로 준다.

/정영일기자

'밤' 타입 화장품이 대세

고보습·지속력 동시 만족

매서운 겨울 바람에 고보습 '밤(balm)' 제형 화장품이 인기다. 반고체형으로 마치 '연고'와 같은 밤 화장품은 촘촘한 제형만큼 수분력과 지속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딱딱한 밤 타입의 화장품은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낸 뒤 손끝의 온기로 살살 녹여 바르면 된다"고 말했다.

핸드앤바디케어 브랜드 일리는 최근 토탈에이징케어 멀티밤과 수분밤을 선보였다.

97% 천연 유래성분으로 만든 '멀티밤'은 동백오일 성분이 각질이 일어나는 건조한 부위에 윤기와 영양을 부여한다. 건조한 입술은 물론 팔꿈치·발꿈치 등에 사용 가능하고,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과 섞어 바르면 더욱 촉촉한 피부결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스킨타인의 '수분밤'은 거칠어진 눈가와 입가에 수분을 공급하는 아이템이다.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고, 메이크업한 얼굴에 살짝 덧발라도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프리메라 '바닐라 멀티 밤'은 바닐라 천연 에센셜 오일과 빌베리 새싹 추출물이 피부를 탄력 있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고보습 제품이다. 천연 유래 성분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라팀스의 '내추럴 수스잇 밤'은 히마인 오일을 비롯해 포도씨 오일·호호바 오일 등의 성분이 건조한 피부를 즉각적으로 촉촉하게 가꿔준다.

특히 아마 씨에서 추출한 아마인 오일은 단백질이 많아 보습에 탁월하고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얼굴뿐 아니라 손·보디 등 전신에 사용할 수 있고, 리퀴드와 밤이 결합된 리퀴드 밤 타입이라 산뜻하게 스며든다. /이지은기자

'의외의 조합'이 효자로

패션·칫솔, 자동차·냉장고 등 크로스오버 콜라보 주목

컬래버레이션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컬래버레이션이 패션과 아트의 접목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전혀 다른 업종의 파트너를 만나 협업을 하는 '크로스오버 컬래버레이션'이 늘어나고 있다. 칫솔과 패션, 자동차와 냉장고 등 기존에 교차점이 없었던 각 분야의 브랜드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전동 칫솔·지간 세정기 등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구강제품은 핑크색을 입고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필립스코리아는 패션 브랜드 앤디앤뎁과 손잡고 '앤디앤뎁 리미티드 에디션 여행용 파우치'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한정판은 앤디앤뎁의 2014년 가을·겨울 컬렉션인 '플라이 미(Fly Me)' 콘셉트가 적용됐으며 가벼워서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필립스 소닉케어의 음파칫솔 소닉케어 다이아몬드클린 핑크에디션과 지간 세정기 소닉케어 에어플로스 핑크에디션, 피부 진동클렌저 비자퓨어 피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냉장고와 자동차를 하나의 제품으로 디자인해서 주목을 끈 협업도 있다.

가전 브랜드 스메그는 최근 이태리 수입 자동차 피아트와 협업한 '스메그 50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피아트 자동차의 대표 모델인 '친퀘첸토'의 자동차 보닛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100ℓ 용량의 음료수 냉장고다.

제품의 보닛 후드를 누르면 냉장고 문이 열리며 자동차 계기판처럼 디자인된 전원 온도조절 장치 등이 내장돼 있다. 레드·블루·옐로 등 톡톡 튀는 색상과 무드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헤드라이트 램프가 적용돼 인테리어 소품으로 손색이 없다.

일룸은 '엑스퀴짓' 론칭과 더불어 국립발레단 소속 형제 발레리노 김경식·김윤식과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

가구업계 최초로 발레리노와 함께 한 협업으로 형 김경식이 발레리노 모델로 서고, 발레리노이자 프로 사진가로 활동 중인 동생 김윤식이 사진을 찍었다.

일룸은 엑스퀴짓의 스프링 이미지를 모델의 점프 동작과 결합, 역동적인 느낌을 극대화한 동영상 바이럴 필름을 선보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안전하고 품격높은 수학여행을!

코레일관광개발이 최근 레일크루즈 '해랑'을 통해 서울 유석초등학교의 수학여행을 진행했다.

지난 여름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우수여행상품'으로 선정된 해랑은 호텔과 열차가 결합된 관광전용열차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운행되기 시작했다.

초등학생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해랑을 타고 순천만과 통영, 부산 등을 둘러봤으며 정동진에서는 해돋이를 경험했다. 또 열차 내에서는 해랑 승무원들의 이벤트와 학생들의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특히 해랑 수학여행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았던 올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인 기차를 이용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해랑 수학여행은 기존의 관광지를 답습하는 형태에서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수학여행이다. 앞으로도 철도를 이용하는 안전한 테마여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5년만의 리뉴얼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대표 김담)가 개점 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하고 이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더 뉴 타임스퀘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타임스퀘어 제공

연말연시 이벤트 풍성

르네상스 서울 호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호텔은 크리스마스와 뉴이어 패키지로 "Oh holy night 패키지"를 내년 1월 5일까지 선보인다. 디럭스 룸 1박과 카페 엘리제 2인 조식,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연말 특선 디너 2인과 하우스 와인 1병, 특별 선물도 제공된다.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엘레판 그릴에서는 'Festive menu'가 마련된다. 12월 한 달간 최상급 와규가 캐비어를 곁들인 자연산 오솔레 칵테일과 관자살을 곁들인 제스빗 자우더, 한우 안심스테이크 등을 맛볼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선보이는 럭셔리 코스 메뉴도 고객을 기다린다.

다음 달 24일에는 크리스마스이브 스페셜 이벤트가 이어진다. 오후 6시30분 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열리는 이벤트에서는 가수 겸 MC 오지헌, OST Gala인 팝 뮤즈의 공연이 펼쳐지며 무료 음료와 특선 코스 메뉴도 즐길 수 있다. /황재용기자

'서울 디자인 위크 2014' 26일 개막

도심 곳곳서 30일까지 5일간 '축제의 장'

'서울'의 디자인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서울디자인 위크 2014(SEOUL DESIGN WEEK 2014)'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코엑스(COEX)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후원,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고 서울디자인페스티벌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DDP를 비롯해 서울의 다양한 디자인 명소를 길 따라 여행하는 '서울 디자인 스팟 투어' ▲국내 대표 디자인 전문 전시회 '2014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세계적 디자인 명사들의 철학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헤럴드 디자인 포럼2014' ▲생활 디자인 제품 및 웰빙푸드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디자인마켓' ▲디자인 명사들이 서울의 디자인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디자인 토크' 등이 준비됐다.

이 기간 시민들은 서울 디자인페스티벌을 통해 톰 딕슨·프란체스카 베잘네시 등과 같은 해외 유명 디자이너·디자인 전문 기업인들과 함께 약 13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도심 곳곳에서는 '서울 디자인스팟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 스튜디오를 주제로 디자이너들의 작업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직접 디자이너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공식파트너 에어비앤비는 15개 주요 스팟들과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열어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가치를 나눌 예정이다. /정연우기자

롯데피트인 동대문점 겨울맞이 새 단장

브랜드 강화해 '젊음과 패션메카'로 발돋움

롯데피트인 동대문점(www.lotteFitin.com)이 새 단장을 마무리하고,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영패션 편집숍과 동대문 신진 디자이너 매장을 선보이 동대문 대표 패션 쇼핑몰로 입지를 굳히는 계획이다.

◆신규 패션·잡화 매장 11개 선봬

한 달여에 걸친 리뉴얼을 마친 '롯데피트인 동대문점' 지하 2층(영업면적 약 540평 규모)에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했다. 총 11개로 걸쳐스타, 베이더아, +S C U E, 플레닛 제트, 반에이브, 테가당스, EDP, 라튜오, 그라프쿤, ViVi 등이다. 원더플레이스는 이달 말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 동대문점 리뉴얼 주요 핵심은 '영캐주얼 편집숍'과 '동대문 신진 디자이너 매장' 입점에 있다.

이를 통해 20~30대 젊은 고객층 유치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젊고 감각적인 패션의 편집숍 '원더플레이스'가 크게 자리 잡아 눈길을 끈다. 또 캐주얼 SPA 브랜드인 '걸쳐골'의 신개념 멀티 편집숍 '걸쳐스타'가 자리를 잡은 것도 관심을 끈다. 다양한 인기 편집숍이 속속 입점돼 영패션 피플의 보물창고이자 놀이터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확신하고 있다.

◆로드숍 동대문 브랜드 대거 입점

그동안 로드숍 중심으로 영업을 해 오던 '그라프쿤', 'ViVi'의 첫 입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세미 캐주얼 '퍼스트드레스'의 세컨드 브랜드인 'ViVi'는 1호점을 이곳에 열었다. 7명의 동대문 디자이너가 모여 신선한 콘셉트를 만드는 '플레닛 제트'도 고객들의 인기가 기대되는 브랜드이다.

또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에 편업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이 지하 2층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주목 받는 패션·잡화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스토어를 운영한 이래 롯데몰 김포공항점에 선출됐던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라튜오'는 롯데피트인에 1호점을 최초로 오픈하면서 수원점까지 운칭할 예정이다.

◆오픈 축기 최대 50% 할인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은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쇼핑 혜택도 마련했다. 브랜드별로는 ▲걸쳐스타·그라프쿤 50~30% 할인 ▲리듀오·베이더이·EDP는 20~10%, ▲ViVi 반에이브 10% 할인 행사를 벌인다.

지하 2층에는 구매 고객 대상으로 미니 농구게임을 즐길 수 있는 'Playground Festival'을 마련했다. 1층 정문 앞 광장에서는 SK플래닛의 새로운 커머스 'Syrup(시럽)'과 제휴해 100% 당첨 경품행사인 골렛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국민·삼성카드로 10~20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1만원권의 롯데상품권을 각각 제공한다.

롯데피트인 동대문점 정준택 점장은 "리뉴얼을 통해 구매력이 있는 20~30대 고객층을 대상으로 상품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을 뿐 아니라 체험형 이벤트 및 사은행사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의 만족을 얻어 쇼핑 공간을 넘어 동대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ymetro@metroseoul.co.kr

온라인서점 사이트 개정 '잰걸음'

바뀐 도서정가제에 혜택 대폭 축소…중고도서는 작업에 혼란

온라인 서점들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서정가제에 맞춰 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시행 당일 오전까지도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제히 신간·구간 모두 10% 책값 할인에 적립 또는 마일리지 5%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책값 할인 10%에 적립 등 간접 할인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게다가 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구간 명물)이 도서정가제 대상에 추가됐다.

도서정가제로 쿠폰이나 포인트 지급 등이 대폭 줄었다.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따라 중단되는 서비스를 알렸다.

예스24는 국내 도서와 전자책 전용 할인쿠폰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구간을 '정가제 프리(free)'라고 표시하고 할인하던 것도 없앴다.

또 교보문고는 사이트를 통해 네이버 마일리지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2014년 11월 21일,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새롭게 준비한 예스24 서비스 4

업계는 마케팅 지원에서 진행되던 혜택이 축소되자 보상 제도 등 새로운 혜택 마련을 내놓았다.

시행 첫날 예스24는 "할인보다 더 센 혜택"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4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문 도서가 품절될 경우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리뷰 작성하면 추가 포인트 지급과 중고도서 바이백 서비스를 일정 기간 진행한다.

교보문고는 재정가 도서만 모아 놓은 카테고리를 새로 신설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가격 혜택인 셈이다.

정가인하 카테고리를 통해 10% 가격 할인, 5% 적립을 적용한 재정가 도서를 판매 중이다.

한편 중고도서 사이트 개편도 진행됐다. 중고도서를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라고 규정함에 따라 기존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인터파크 도서는 21일부터 일부 중고도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사업자 회원에게 매입한 상품은 중고도서 정의 기준에 합당한지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터파크 측은 판매 세부 규칙이 없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중고도서 코너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겨울 스포츠 부상 조심하세요

안전 교육받고 다치면 응급처치 받아야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와 스노보드의 계절이 찾아왔다. 하지만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다 다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스키로 인한 부상은 무릎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정강이뼈 골절이나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가장 흔한데 이런 부상을 당하면 올 겨울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정강이뼈 골절을 막으려면 부츠와 스키를 연결하는 바인더의 고정력을 낮춰야 한다. 과거에는 표준 수치를 무시한 채 임의로 수치를 조정해 부상이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은 첨단 장비 사용화 보편화로 사용하면 숙지하면 정강이뼈 골절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스키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는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질 수 있다. 스키를 타기 전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며 넘어질 때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넘어져야 한다. 게다가 넘어질 때는 손을 뒤로 짚지 말아야 하며 미끄러져 정지할 때까지 무리하게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스노우보드는 스키보다 더 무겁고 두 발이 보드에 묶인 채 폴대를 잡지 않고 타기 때 때문에 팔의 손상이 많다.

뒤로 미끄러져 넘어질 때는 손목과 팔꿈치에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앞으로 미끄러질 때는 어깨와 손목을 다칠 수 있다. 특히 어깨는 탈골과 탈구, 쇄골 관절 분리 등이 많다.

스노우보드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헬멧과 보드 전용 장갑,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넘어질 경우는 무릎을 굽혀 땅에 대고 팔과 손바닥 전체로 땅을 짚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뒤로 넘어질 때는 엉덩이 부위를 이용해 옆으로 미끄러지듯 넘어지도록 한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SPC그룹, 장애인 제빵작업장 기술지원 나서

SPC그룹은 서울시에 위치한 9개 장애인제과제빵 작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SPC그룹은 지난 22일 SPC 수서기술교육센터에서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 제과제빵사 26명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 기술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룹 측은 이들에게 ▲기술교육 세미나 ▲현장방문 기술지도 ▲노후 제과제빵설비 교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정영일기자

metroentertainment

준비된 10년차 배우, 정일우의 꿈

"아홉편의 드라마를 했는데 그 때마다 느끼는 건 시청률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시청률은 신경 쓰기보다 페이스를 잃지 않고 매 회 중심을 잡아 연기하자는 목표로 임했습니다."

24부 연속 시청률 1위라는 대기록을 남기고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 일지'의 남자주인공 정일우의 말이다. 배우 경력 9년차인 그는 스물여덟의 나이가 되는 내년이면 연기 인생 10년을 꽉 채운다. 경력만 보면 햇병아리는 이미 지났고 연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야경꾼 일지'를 마치고 만난 정일우는 여유로웠다.

◆ '야경꾼 일지'에서 맡은 이린 역에 대한 호평 일색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이린은 적통 왕자지만 자신의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캐릭터다. 출타가하는 인생이지만 자유분방하며 장난스런 성격이다. 감정선이 자유자재인 캐릭터라 연극하듯 감정을 넘나들어야 됐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어느 사점에서는 일정한 변화를 줘야한다는 계산이 있었다. 그게 잘 맞아 들었다. 또 사극이라서 발성과 발음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배우는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 24부를 끌고 가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보통 드라마는 촬영 중후반부가 지나면 페이스를 잃거나 '멘붕'이 오기 마련이다. '야경꾼 일지'는 조금 이른 촬영 초중반에 그런 것이 왔다. 그때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이주환 감독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셨다. 덕택에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 시청률도 좋았다. 감사한 마음이다. 감독님이 가볍게 연기하기를 요구했다. "이제 10년차니 너를 믿고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자신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들었다.

◆ 아쉬움은 없었나

항상 아쉬움은 많지만 후회는 없다.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는 없기에 다음 작품에서 보완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잠 한 숨 안자고 연기했고 체력은 물론 정신력까지도 4개월 간 집중했다. 다만 극중 도하(고성희)와의 로맨스가 조금 아쉬웠다. 사공신의 스케일이 크다 보니 로맨스가 못 살아난 부분이 있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본인이 생각하는 정일우는 어떤 사람인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챙기려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지는 못한다.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 주위 분들이 좀 덜 완벽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성격상 그러지 못한다. 책임을 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그런 자격이 있는 배우가 되려고 노력한다. 술도 좋아하지 않고 담배도 끊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재미없는 사람 같다(웃음).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나이가 돼서 그런지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내가 존재하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게 된다. 지금은 고민하는 시기다.

◆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다?

오래 전이라 기억도 잘 안난다(웃음). 일을 하면 일밖에 모르는 성격이라서 그 동안 쉼 없이 연기만 했다. 일만 신경쓰기에도 벅차다. 보통 연애를 하면 상대가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내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큰 사람이 됐을 때 하고 싶다(웃음).

◆ 쉼 없이 달려 왔다. 앞으로의 계획은

드라마가 끝나도 쉴 틈이 없다(웃음). 당장 팬미팅이 연달아 있고 12월에는 아시아 투어에 들어간다. 회커들릭 처럼 보일 수 있는데 쉬면 우울증이 온다(웃음). 다음 작품에서는 딴가지 성격에 집중할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

◆ 10년차 배우 정일우의 꿈은?

자격 있는 배우. 그리고 뚜렷한 색이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10년차 배우이기 이전에 이십대 청년으로서 더 배우고 느끼며 살고 싶다. 배우로서, 그리고 평범한 정일우로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늘 다 어렵다. 광성 캐릭도 모든 것 같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점점 더 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다. 정말 큰 행운을 받은 만큼 내가 가진 행운과 능력, 그리고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유독 제 팬 중에는 몸이 편치않으신 분들이 많다. 팬 미팅 때 그분들이 나를 보고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했다. 연기만 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김숙희기자 kino2694@metroseoul.co.kr

사진/리안드래아빠 ... 디자인/...

'야경꾼 일지' 자신감·책임감 함께 느껴

인생을 생각할 나이, 혼자 고민하는 시기

"자격 있고 뚜렷한 색깔있는 배우 되고파"

"차세대 싱어송라이터의 탄생"

곽진언, 자작곡 '자랑'으로 '슈퍼스타K6' 우승

엠넷 '슈퍼스타K6'의 최종 우승은 곽진언에게 돌아갔다.

지난 21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슈퍼스타K6' 결승전에서 곽진언과 김필은 우승을 두고 경쟁을 펼쳤다.

첫 번째 라운드 '자율곡' 미션에서 김필은 마이클 잭슨의 '맨 인 더 미러'를 선곡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곽진언은 조용필의 '단발머리'로 특유의 매력을 뽐냈다.

이어진 두 번째 라운드는 '우승곡' 미션이었다. 김필은 어떠한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필스 송'을 박혔다. 곽진언은 밝수 생활을 하며 만든 자작곡 '자랑'으로 무대를 꾸몄다. 특히 곽진언은 기타 선율에 의지한 채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저음의 보이스로 '자랑'을 노래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심사위원인 가수 김범수는 "국내를 대표할 차세대 싱어송라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창작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고 재능이 있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평하며 97점을 줬다. 박진영 역시 "진짜 좋은 뮤지션"이라며 "'슈퍼스타K6'에서 하나 나왔구나 싶다"고 말하며 9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승철은 "목소리가 환상적이다. 끝까지 풍부하게 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역시 99점을 주었다. 곽진언은 심사위원 점수 385점, 온라인·대국민 문자투표 397점을 얻어 총 782점으로 '슈퍼스타K6' 최종 우승자가 됐다.

올해 '슈퍼스타K6'는 참가자들의 음악성에 집중한 결과 시청률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1일 방송된 결승전은 시청률 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4.195%(케이블 가입가구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시즌 시청률 1.77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방송 이후에도 곽진언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유명세를 치렀다. 특히 배우 하지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감동했다"며 "멋지다. 곽진언"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슈퍼스타K6'에서 우승한 곽진언에게는 음반제작비를 포함한 우승 상금 5억원과 부상인 빅스커가 주어진다.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는 '2014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의 특별무대에도 선다.

/김민지기자 minjkim@metroseoul.co.kr

곽진언

지난 21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엠넷 '슈퍼스타K6' 결승전 무대에서 곽진언이 최종 우승자로 발표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CJ E&M 제공

박정현·다이나믹 듀오 공연

R&B와 힙합의 만남…포스터

가수 박정현과 힙합 그룹 다이나믹 듀오가 올 연말에 개최하는 합동 공연 '2014 다이나믹 듀오+박정현 그 해 겨울'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 해 겨울'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박정현의 겨울 시즌 브랜드 콘서트다. 그 동안 휘성, 김범수, YB 등이 박정현과 함께 공연을 펼치며 큰 인기를 모았다. 올해는 힙합 그룹 다이나믹 듀오와의 합동 공연을 결정해 화제가 됐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담백한 톤의 흑백 사진 위로 분홍색 글씨로 공연 제목과 가수 이름을 표기했다. 15년 이상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두 뮤지션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R&B와 발라드 등 느린 템포의 곡으로 호소력 짙은 가창력을 자랑하는 박정현과 열정적이고 화끈 비트의 멜로디로 무대를 압도하는 다이나믹 듀오의 조화에 음악 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정현과 다이나믹 듀오의 '그 해 겨울' 공연은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매일 1회씩 총 4회 공연으로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

낭만·감성으로 돌아온 박효신

가수 박효신의 새 싱글 '해피 투게더'의 재킷 이미지가 22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재킷은 세잎 클로버와 나비의 이미지를 담아 신비로움과 추억이 녹아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나비의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세잎클로버 이파리에 새겨진 '해피 투게더'라는 글자를 통해 행복을 싣고 자유롭게 비상하고픈 감성을 낭만적으로 표현했다.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재킷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일러스트 아티스트인 이찬성과 박효신의 전작 '야생화'의 온라인 커버 작업을 맡았던 디자이너 이유미의 작품이다.

한편 박효신의 새 싱글 '해피 투게더'는 24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유순호기자

'내 마음 반짝반짝' 시작부터 '잡음'

김정은·김수로 하차에 제작사 "법적 조치" 밝혀

배우 김정은(사진 아래)·김수로(위)의 하차로 갈등을 빚고 있는 SBS 새 주말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 제작사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제작사 삼화네트웍스 측은 "김정은과 김수로는 19일 첫 만남을 앞두고 각각 17일과 18일 배역 비중·상대 배우 교체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일방적인 하차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제작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출연을 결정하면서 드라마의 원래 가제였던 '장사의 신 어순정'으로 제목 수정을 요청했고 제작진은 이를 수용해 제목을 변경했다.

삼화네트웍스 측은 "김수로는 김정은의 하차 소식이 알려진 직후 상대 배역 교체를 이유로 돌연 하차 요구를 해왔다. 제작진은 통보 직후 김수로를 설득했지만 첫 촬영을 앞두고 설득만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제작진은 두 주연배우 캐스팅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배우의 갑작스런 하차로 프로그램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찬을 논의 중이던 일부 광고주들이 계약을 망설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로의 소속사 SM C&C 측은 "상대 배우의 하차 소식을 듣게 됐고 다른 촬영으로 무릎 부상, 연골 손상 등의 통증을 겪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드라마 촬영에 큰 누를 끼칠 수 있어 고민이 깊었다"며 "오랜 시간 노력해서 준비해 온 드라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작진·방송사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정은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내 마음 반짝반짝'은 '며느리 전성시대' '솔약국집 아들들' '사랑을 믿어요' '결혼의 여신'을 집필한 조정선 작가와 '아내의 유혹' 오세강 감독이 함께 만드는 드라마다. 서민의 음식인 치킨으로 맺은 두 집안의 성공과 성장을 담는다. '마녀의 탄생' 후속작으로 내년 1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손예진 최민식

'명량', 대종상영화제 4개 부문 석권

최민식·손예진 남녀 주연상…신인상은 박유천·임지연 영광

영화 '명량'이 제51회 대종상영화제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임을 증명했다.

'명량'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홀에서 열린 제51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작품상·남우주연상·기술상·기획상을 받았다.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역대 최다 관객수인 1760만명을 모으며 한국영화 흥행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한민 감독은 "'명량'이 화합과 치유의 영화가 되길 바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소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최민식은 "그분(이순신)의 발자취를 좇으며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다.

여우주연상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의 손예진에게 돌아갔다. 손예진은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 같이 떨린다"며 "'해적'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이 자리에 있으니 촬영하면서 몸을 더 혹사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후회가 된다. 촬영하는 동안 춥고 힘들어서 촬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고마움을 전한 그는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무섭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는 것들에 대한 자책감도 무뎌지는 내 자신을 반성한다. 다시 한번 고삐를 옥죄 주겠다. 과분한 사랑만큼 책임감이 무겁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해적'은 조선의 옥새를 삼켜버린 귀신고래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내려온 산적 장사정(김남길)이 여자 해적 여월(손예진)과 함께 바다를 누비며 벌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8월에 개봉해 866만 관객을 모으며 '명량'과 함께 여름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다. '해적'에서 철봉을 연기한 배우 유해진은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한편 임우석 감독의 '변호인'은 시나리오상·여우조연상(김영애)·신인감독상. 김성훈 감독의 '끝까지 간다'는 감독상·촬영상·조명상을 가져가며 3관왕에 올랐다. 신인남우상은 '해무'의 박유천이, 신인여우상은 '인간중독'의 임지연이 차지했다. 공로상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의 주인공이었던 정진우 감독에게 수여됐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이민기·여진구, 새해 조우

'내 심장을 쏴라' 1월 개봉

이민기·여진구 주연의 영화 '내 심장을 쏴라'(감독 문제용)가 내년 1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내 심장을 쏴라'는 평온한 병원생활을 이어가던 모범환자 수명(여진구)이 시한폭탄 같은 동갑내기 친구 승민(이민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7년의 밤' '28' 등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정유정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이민기, 여진구가 연기한 두 주인공 승민과 수명의 엉뚱한 모습을 담았다. 이민기는 어떻게든 병원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승민 역을 통해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했다. 여진구는 지금까지 선보인 적 없는 긴 헤어스타일을 한 수명 역으로 기존과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내 심장을 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다. 이민기·여진구 외에도 유오성·김정태·김기천·신구 등이 출연한다.

/정병호기자 solanin@

윤상현·메이비 8개월째 열애

결혼 전제로 교제 밝혀

배우 윤상현(사진 오른쪽)과 작사가 겸 가수 메이비(본명 김은지·왼쪽)가 8개월째 교제 중이다.

지난 21일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현재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연기와 음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활동해 얘기가 무척 잘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윤상현은 최근 진행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녹화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내년 조 6세 연하의 여자 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했고 여자 친구의 직업을 '작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은 2005년 SBS 드라마 '백만장자와 결혼하기'를 통해 연기자로 발을 내디뎠다. 이후 '내조의 여왕' '시크릿 가든'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갑동이' 등에서 열연했으며 현재는 영화 '덕수리 5형제'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메이비는 2006년 가수로 데뷔했으며 이효리의 '텐미닛', 김종국의 '중독',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그래도 남자니까' 등 여러 히트곡의 가사를 썼다. 2010년까지 3년 반 동안 KBS 쿨FM '메이비의 볼륨을 높여요'를 진행했으며 MBC 아침드라마 '분홍 립스틱'(2010), KBS2 드라마 '노리코, 서울에 가다'(2011)에도 출연했다.

/전효진기자

'인터스텔라' 637만 돌파

놀란 감독 국내 최고 흥행 눈앞

영화 '인터스텔라'가 개봉 3주차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굳건히 지켰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국내 최고 흥행작이 될 전망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인터스텔라'는 개봉 3주차 토요일인 22일 하루 동안 전국 1127개 스크린에서 4936회 상영돼 53만3126명의 관객을 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637만3627명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국내 최고 흥행작은 지난 2012년에 개봉한 '다크 나이트 라이즈'다. 당시 639만 관객을 동원했다. 592만 관객을 모은 '인셉션'과 408만 관객을 모은 '다크 나이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인터스텔라'는 개봉 3주차 토요일에도 50만이 넘는 관객을 모을 정도로 흥행 기세가 뜨겁다. 최종 관객 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20일 개봉한 '정거게임: 모킹제이'는 22일 하루 동안 16만989명을 모아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날 개봉한 '퓨리'는 15만3728명을 모아 3위로 첫 등장했다.

/정병호기자

23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하나은행 FA컵 결승전 FC 서울과 성남 FC의 경기에서 연장전 전반이 끝난 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FA컵 통산 3번째 우승

승부차기 혈투 끝 서울에 4-2 승리

FA컵 결승에서 성남 FC가 서울 FC를 꺾고 정상에 섰다.

성남은 2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2014 하나은행 FA컵 결승전에서 연장 120분 혈투를 벌였다. 그마저도 어들의 승부를 갈라 놓지 못했다. 성남은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박준혁이 2개의 슈팅을 막아내는 맹활약을 펼치며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성남은 2011년 성남 일화 시절 FA컵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면서 통산 세 차례(2014년·2011년·1999년)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 2억원과 함께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는 기쁨을 맛봤다.

경기 초반부터 성남은 제파로프를 선두로 파상공세를 벌였다. 선수비 후공격 작전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성남이지만 서울의 초반 공세에 공격으로 맞불을 놨다. 완벽한 득점 기회는 서울이 먼저 잡았지만 골운이 따르지 않았다.

서울은 전반 22분 성남 골키퍼 박준혁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볼을 잡으려다 놓쳐 에스쿠데로가 재빨리 빼앗아 골대를 향해 차넣었다. 그러나 성남의 수비수 곽해성이 몸을 날려 막았다. 결정적인 위기를 넘긴 성남은 전반 27분 문전에서 시도한 김동섭의 헤딩 슈팅이 골키퍼 김용대의 세이브에 막혀 기회를 날렸다.

서울은 골대를 맞히는 불운도 따랐다. 후반 25분 오스마르가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정면을 향하더니 후반 36분에는 김진규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다.

전·후반 90분을 득점 없이 마친 두 팀은 결국 연장 혈투를 벌였지만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성남 골키퍼 박준혁은 서울의 첫 키커 오스마르와 세 번째 키커 몰리나의 슈팅을 막아내 4-2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MVP)로도 선정됐다.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양현종, MLB 진출 '고심'

미네소타 최고 응찰액 기대보다 낮아

KIA 타이거즈의 왼손 에이스 양현종(25·사진)이 구단 측과 함께 미국 프로야구 포스팅 최고응찰액 수용 여부를 놓고 면담을 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3일 양현종은 광주에서 KIA 실무 책임자를 만나 미국 진출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현종은 "구단에 많은 고민을 안겨 죄송하다"며 "구단에서 허락한다면 미국 진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KIA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답했다. 양현종도 구단의 뜻을 받아들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고응찰액 수용 여부를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KIA와 양현종에게는 늦어도 27일까지 고민할 시간이 있다.

KIA와 양현종은 지난 22일 오전 최고응찰액을 통보받았다. 둘이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다.

KIA와 양현종이 고민하는 사이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미네소타 트윈스가 양현종 포스팅에 최고응찰액을 써냈다"고 보도했다. 아메리칸리그 중부 지구에 속한 미네소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나서지 못한 약체다.

한 스카우트는 "양현종의 실력이라면 미네소타 투수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포스팅 금액이 낮으면 연봉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상당한 부담을 안고 스프링캠프를 시작해야 한다"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정병호기자 [illegible]

메시·호날두 연이은 '골골골'

개인통산 최다 골-득점 부문 1위 기록 행진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사진 오른쪽)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왼쪽)가 주말 동안 열린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경기를 뜨겁게 달궜다.

메시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경기장에서 열린 세비야와의 12라운드 홈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세비야를 5-1로 가뿐하게 제압했다.

이로써 메시는 프리메라리가에서 253호 골을 쌓았다. 프리메라리가 역대 개인통산 최다 골에 해당하는 신기록이다.

이전까지 이 부문 기록은 1955년 텔모 사라가 쓴 251골이었다. 당시 사라는 1940년부터 15년을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뛰며 이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메시는 10시즌 만에 신기록을 세웠다. 2004년 10월 17세 114일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성인 팀에 데뷔한 메시는 이듬해 5월 프리메라리가 데뷔골을 터트렸으며 이후 역대 개인 통산 최다 골(368골), 프리메라리가 역대 최다 경기 연속 골 기록(21경기), 프리메라리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골(50골), 프리메라리가 한 시즌 최다 해트트릭(8회) 등 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호날두도 같은 날 스페인 에이바르의 무니시팔 데 이푸루아 경기장에서 열린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호날두의 활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에이바르를 4-0으로 꺾었다.

호날두는 리그 11경기에서 20골을 터뜨리며 득점 부문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2위인 네이마르(11골·바르셀로나)를 9골이나 따돌린 상태다. 공식 경기로 따지면 올 시즌 18경기에서 25골을 뽑는 폭발력을 보이고 있다.

/정병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3일)

팀	1Q	2Q	3Q	4Q	OT	합계
KT	28	19	17	15		79
KCC	14	19	13	20		66
전자랜드	11	15	25	21		72
인삼공사	16	22	13	17		68
SK	15	11	22	16	5	69
동부	20	21	13	10	4	68

프로배구 전적 (23일)

홈	세트	세트	원정
대한항공	3	1	현대캐피탈
흥국생명	2	3	IBK기업은행

태극전사 '쌍포' 득점포 가동 '훨훨'

손흥민·이청용, 유럽 리그 원정서 나란히 골

태극전사의 좌우 '쌍포'가 유럽 리그에서 훨훨 날았다.

손흥민(레버쿠젠)은 리그 5호 골로 팀 승리를 견인했고 이청용(볼턴)은 후반 극적 동점골을 터뜨리며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손흥민은 22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의 HDI 아레나에서 열린 하노버96과의 2014-2015 분데스리가 1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3분 두 번째 골을 잦아 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지난달 18일 슈투트가르트와의 8라운드에서 정규리그 3·4호 골을 연속으로 터뜨렸던 손흥민은 4경기 만에 분데스리가에서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다.

지난 4일 제니트(러시아)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2·3호골을 기록한 지 18일 만에 나온 골이다. 올 시즌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정규리그에서 5골,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3골,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골,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서 1골 등 총합 11골을 기록 중이다.

이청용(왼쪽) 손흥민. /연합뉴스

이날 손흥민의 골이 결승골이 된 가운데 레버쿠젠은 하노버를 3-1로 제압, 최근 정규리그 2경기를 무승(1무1패)으로 마감하고 4위(승점 20)로 올라섰다.

이청용은 영국 블룸필드 로드에서 열린 블랙풀과의 챔피언십(2부 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7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이청용은 지난 1일 노리치전(1골), 5일 카디프시티전(1도움), 8일 위건전(1골 1도움)에 이어 최근 4경기 연속으로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4경기에서 무려 3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중동 원정을 떠나기에 앞서 대표팀의 당면한 문제로 최전방 공격수 부재와 골 결정력 부족을 들었다. 이란과의 두 번째 경기를 마친 뒤에도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손흥민과 이청용, 태극전사 '쌍포'가 나란히 기록한 골은 슈틸리케 감독의 고민을 덜기에 충분했다.

/김학철기자

KT&G | 전국민 행복 프로젝트

사람을 향한 마음 = 행복을 나누는 세상

내일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존중받고 이뤄지는 세상
KT&G는 상상을 현실로 바꿔가는 노력과 다양한 활동들로
모두를 위한 내일의 행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T&G와 함께 더 행복한 내일"

상상경영

상상에 답하다 KT&G